영국 북스타트 운동의 의의와 그 추진 현황

- 세필드 북스타트를 중심으로 -

Bookstart in the UK: its operation and significance

- A case study of Bookstart in Sheffield -

김 영 석(Young-Seok Kim)*

목 차

1. 머릿말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
3. 영국의 북스타트
   3. 1 목적
   3. 2 시작의 배경
4. 세필드의 북스타트
   4. 1 시작과 운영 현황
   4. 2 수혜대상 및 시기
   4. 3 북스타트 담당 인력
   4. 4 예산
   4. 5 운영 방법
   4. 6 북스타트 가방(Bookstart bag or pack)에 든 선물
   4. 7 북스타트 관련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5. 영국 북스타트의 영향
   5. 1 한국
   5. 2 일본
   5. 3 뉴질랜드
6. 끝맺는 말

초 록

북스타트는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유아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 주는 운동이다. 비영리 단체인 영국의 북트러스트는 1992년에 버밍햄시에서 버밍햄 도서관당국, 남부 버밍햄보건국 그리고 버밍햄대학교와 협력하여 이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운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계의 많은 연구자, 도서관사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영국의 북스타트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에게 북스타트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터뷰, 설문지 그리고 문헌조사가 함께 이루어 졌다. 영국의 북스타트는 아기의 독서 및 책에 대한 흥미 증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관계 개선 그리고 사회적 소외 해결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ABSTRACT

Bookstart is a gifting project, which aims to provide free books to babies in order to promote the idea of early book sharing and to develop a life long love of books. Bookstart was initiated in the UK in 1992 by the independent charity Booktrust in co-operation with Birmingham Library Services, South Birmingham Health Authority and Birmingham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The idea of Bookstart has begun to spread not only to Korea but also to other countries. Bookstart in Korea is due to actively operate in man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many library researchers, scholars and professionals, council officers and ordinary people who are involved in Bookstart in Korea are urgently looking for materials on Bookstart in the UK. Consequently, this study examines Bookstart in the UK and the main aims of this study are: to produce results applicable to the successful operation of Bookstart in Korea; to give Bookstart-related people an understanding of many aspects of the operation of Bookstart; and to provide ideas and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Bookstart in Korea. In order to obtain useful data, the researcher used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method and reviewed the literature. The study revealed that Bookstart in the UK aims not only to promote babies' interest in books and reading but also to improve family relationships and to tackle social exclusion.

키워드: 북스타트, 공공도서관, 독서, 유아독서, Bookstart, Public Library Services, Reading, Baby Reading

---

* 영국 세필드대학교 (문헌)정보학과(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박사학위 취득예정 (7월) 및 동 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자료 목록사서(Korean Cataloguer) (y.s.kim@sheffield.ac.uk)

논문접수일자 2004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6월 14일

1. 머릿말

영국의 북스타트는 '아기독서증진'이라고 하는 독특한 취지와 함께 지난 10여년 사이에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 되는 등 성공적인 운영으로 영국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영국의 북스타트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운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게 된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활발하게 일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운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즉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과정에서 '아기독서증진'이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 운동의 대상을 유아(어린이)에 둔 - 영국의 북스타트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계의 많은 연구자, 도서관사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영국의 북스타트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이 북스타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북스타트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개하고, 또 북스타트 관련자들이 이 운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영국의 북스타트가 '세계최초의 (전국단위의) 아기독서증진 운동'의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해 왔는지를 세필드 북스타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세필드 북스타트 뉴스레터(Sheffield Bookstart Newsletter)에 소개된 북스타운동에 관한 아래의 간단한 설명은 이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주고 있는 듯 하다.

> 북스타트는 유아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주는 '전국단위의 (책)선물주기 사업'(national *gifting* project)이다. 세필드시에서는 방문간호사(Health Visitors) 들이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고 '무료 책선물 가방'은 이동도서관을 포함해서 시의 모든 공공도서관에 준비되어 있다(Department of Libraries, Archives & Information 2003, 4: 1).

그러나 이 설명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많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즉 북스타트는 아기독서증진을 위하여 아기들에게 무료 책선물 가방을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는지? 북스타트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중앙 혹은 지방 정부) 부담하는지? 몇 살의 유아들에게 누가 선정한 어떠한 책들이 주어지는지? 북스타트 가방안에는 책 외의 또 다른 선물은 없는지? 또 북스타트와 관련해서 공공도서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등.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수행 되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영국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김영석 2003)의 일환[1]으로 시작

1) 필자는 '영국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북스타트 관련 내용도 포함 시킬 계획이었으나 북스타트 관련 내용이 많아 별도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되었다.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셰필드지역 북스타트 담당 최고 책임자(Books for Babies Co-ordinator)를 면담(interview)하였다.

미리 약속된 면담은 2003년 10월 28일 오전에 셰필드에 있는 27 공공도서관중의 하나인 마너(Manor)공공도서관에서 약 55분간 진행되었다. 필자는 사전 동의를 얻어 면담내용을 녹음기로 녹음 하였고 녹음된 모든 내용을 후에 필사기(transcribing machine)를 이용해서 받아적었다. 받아적은 면담의 내용은 A4용지(1.5간격)로 약 12장 분량이 되었다. 면담내용(low data)의 분량이 많지 않아 컴퓨터프로그램(CAQDAS: 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을 이용하지 않고 수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받아적은 면담의 모든 내용을 우리글로 번역하지 않았고 본문에서 인용된 내용만 번역하였다.

필자는 '영국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설문지를 이용하였는데 이 설문지에는 '북스타트' 관련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행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이번 연구를 위해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또 북스타 관련 인터넷 및 문헌자료가 많이 있어 이들 자료도 함께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담방법이 기본이 되고 문헌조사와 설문지 방법이 함께 이용되었다.

3. 영국의 북스타트

3. 1 목적

북스타트를 처음 구상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그 운영을 감독하고 있는 북트러스트 (Booktrust)는 북스타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북스타트는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유아들에게 무료로 책을 선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Booktrust 2003a).

그러나 북스타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스타트는 단순히 '독서' 혹은 '책'의 중요성 만을 강조하는 운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스타트를 소개한 소책자(pamphlet)에 의하면 '책과 유아를 함께 묶어준다'는 북스타트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스타트는:

-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 서로 사랑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함께 갖는 운동이다.
- 유아가 익숙한 하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야기나 동요 혹은 동시에 친숙해지게 하는 운동이다.
- 유아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한 유아들에게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생생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다.
- 평생 책 사랑을 일깨워주고 유아들에게 그들의 독서여행(습관) 시작의 최고의 기회를 공하고자 하는 것이다.(Booktrust

[1992], [1])

한편, 쿨링(Cooling 2003, 5)은 북스타트의 잇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올바른 양육
- 성인/가족 읽기 쓰기 능력 개선
- 언어 능력 향상
- 지역 도서관 이용 증가
- 지역 언어 사용 지원
- 가족 관계 개선
- 기능적 읽기 쓰기 능력 개선 및 그에 따른 미래 인력 육성
- 사회적 소외 해결
-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사회와 사회집단(예를 들면 여행자, 젊은 부모/양육자, 수감 중인 어머니 그리고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각 별한 노력.
- 평생학습 장려
- 도서관과 의료 기관 간의 지역단위 그리고 전국 단위의 협력 체계 구축

결론적으로, 북스타트의 목적은 유아가 있는 가정에 책을 무료로 나누어 주고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유아와 부모, 더 나아가 한 가정과 다른 가정이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3. 2 시작의 배경

북스타트 운동는 비영리 단체인 '북트러스트'(Booktrust)의 구상에 의해서 1992년 영국 버빙햄(Birmingham)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정확히 이 운동은 북트러스트가 버빙햄 공공도서관(Birmingham Library Services), 남부 버빙햄보건국(South Birmingham Health Authority), 그리고 버빙햄대학교 교육대학원(Birmingham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과 협력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현재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주관하고 관리하는 북트러스트는 1926년에 영국 런던에서 설립되었는데 초창기 이름은 전국 책연맹(National Book League)이었다 (Booktrust 2003b, 2003c). 현재 북트러스트는 전국단위의 독립적인 교육분야 자선단체(independent educational charity)로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하게끔 만드는 것'[2]을 단체의 기본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북트러스트는 예비연구(pilot project)를 시작으로하여 북스타트를 출발 시켰다. 북스타트가 태동하게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북트러스트는 1992년 버밍햄에서 300가구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나의 예비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Wade교수와 Moore 박사에 의해서 주도 되었다. 이 연구팀은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이 9개월이 되어 건강진단을 받을 때 이들 부모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 유아들의 전반적인 발달과정을 5년 동안 세밀하게 관찰하였다. 그 결과 이 유아들이 초등학교를 시작할 무렵에 언어 및 수 개념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2) 혹은 '사람과 책을 함께 묶어주는 것' (to bring books and people together).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유아들이 책을 받고 2년 후에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 보다 세 배나 더 많이 독서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었다(Booktrust [2003d]).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트러스트는 북스타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스타트는 비록 북트러스트의 전체적인 구상과 준비 그리고 관리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이 한 단체의 활동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운동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및 보건당국 그리고 그 지역의 대학이 협력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또 이 운동은 중앙정부 혹은 민간기업의 협력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운동은 어느 한 단체의 활동이 아닌, 한 국가의 미래의 주인공인 유아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고 추진하고 있는 범국가적인 독서 혹은 교양사업이다. 쿨링(2003, 9)은 '북스타트는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의 가정 좋은 예'라고 말하였다.

4. 셰필드의 북스타트

4. 1 시작과 운영 현황

셰필드의 북스타트는 이 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버빙햄시 보다 7년이 늦은 1999년 1월에 - 가방전달은 그 해 8월에 - 시작 되었다. 이 시의 북스타트도 버빙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의 도서관당국(Library Authority)이 보건당국(Community Health Sheffield) 그리고 the Sheffield College와 협력한 가운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Christchurch City Libraries [2000b]).

이 시에서는 1년에 약 6,000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시의 북스타트 팀은 이 모든 유아들에게 무료 선물가방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즉 도서선물권(Bookstart voucher) 방법을 이용할 경우 부모들이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해서 선물권을 선물가방과 바꿔가야 하는데 난민(refugees) 이라든가 혹은 전에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부모들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료선물 가방이 유아들에게 전달 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스타트 담당자들은 진료소나 동네모임에 찾아가서 부모들에게 직접 선물가방을 전달하기도 한다.

1999년에 셰필드의 북스타트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약 1만명 이상의 유아(부모)들이 도서관에 등록하고 선물가방을 받아갔다. 그러나 실제로 북스타트 가방을 받은 유아들은 이 숫자 보다 많다. 왜냐하면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떤 유아들, 예를들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가족의 유아들은 도서관이 아닌 보건소, 집 혹은 다른 장소에서 선물가방을 직접 전달 받고 도서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셰필드 북스타트팀은 '북스타트 유아' - 선물가방을 받은 유아 - 들의 고유 도서관등록 바코드번호를 이용해서 이들 유아들의 도서관 등록과 이용현황을 매달 파악하고 있다. 이 현황에 의하면 현재 도서관에 등록된 '북스타트

유아'들의 반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셰필드 북스타트팀은 1999년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 첫째, 영국의 많은 지역에서 북스타트에 대한 보고서(Booktrust 2003e; London Borough of Enfield Council 2002)가 발표되었지만 잉글랜드 북쪽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발표된 예가 없다. 둘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셰필드에서는 1999년에 북스타트가 시작되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이 사업의 혜택을 본 유아들중 일부가 초등학교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즉 이 사업의 혜택을 본 어린이들의 학교적응 및 성취도가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과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셰필드 북스타트 팀장은 '전국적인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이들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4. 2 수혜 대상 및 시기

기본적으로 6-8개월된 유아가 북스타트의 무료 선물가방을 받게 된다. 이것은 유아들이 이 성장기에 방문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최초로 청력검사를 받기 위해 동네보건소(GP: General Practitioner)를 방문했던 것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아이의 청력 검사는 아이의 출생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재는 아이의 다른 면역화과정 혹은 건강상태 검진과정에서 북스타트가 부모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는 반드시 생후 6~8개월에만 무료가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를 놓친 유아들도 생후 2살때까지 언제든지 요청하면 가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방을 받는 시기는 6~24개월까지로 융통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북스타트 가방 수혜시기는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셰필드 도서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북스타트 뉴스레터(Sheffield Bookstart Newsletter)는 수혜시기를 7~12개월로 소개하고 있고, 또 북트러스트는 7~9개월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자료에 따라서 수혜시기가 다른점은 셰필드 북스타트 담당자가 밝힌 바와 같이 6-24개월까지 언제든지 요구에 의해서 선물가방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또 이 융통성은 지적발달이 늦은 아이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 북스타트 플러스(Bookstart Plus)

시의 몇 몇 지역에서는 두 살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북스타트 플러스 무료 선물가방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출현의 어린이 그리고 가족건강 및 복지 재단'인 슈어스타트(Sure Start [2004])가 부담한다. 이 선물가방은 비닐로 만든 가방에 한 권의 책과 1개의 놀이기구 - 대체로 퍼즐 -가 들어 있다. 몇 몇 지역에서는 퍼즐 대신에 두 권의 책을 넣어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은 퍼즐을 선호하고 있다. 또 소수민족 어린이에게는 2개 국어로 된 책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런 종류의 책은 가격이 비싸(권당 10-15파운드) 모든 소수민족 어린이에게 제공되지는 못하고 있다.

4. 3 북스타트 담당 인력

셰필드 도서관에는 1명의 팀장(Books for Babies Co-ordinator)을 포함해서 7명의 직원이 북스타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지역에 있는 3개의 공공도서관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들에게 무료 선물가방을 직접전달 하는 등, 이 사업의 혜택을 이들 유아들에게 우선해서 주기 위해서이다. 직원들은 3개의 도서관에 분산 배치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 모임등을 통해서 자주 만나 업무관련 논의를 한다. 이 운영위원회는 북스타트팀, 도서관의 중간관리자, 일차진료재단(primary care trust)의 직원 그리고 방문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7명의 담당자중, 최고 책임자(팀장) 한 명만 시(도서관당국)[3]에 의해서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은 시(市) 외의 외부 기금에 의해서 고용되어 있다. 도서관당국은 2003년 가을에 도서관기구 개편을 단행하면서 '유아사서(Early Years Librarian)'로 하여금 북스타트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다.

팀장은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하면서 이 시의 북스타트 관련 일반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팀장은 또 동네그룹(community group)을 방문하고 방문간호사를 만나는 등, 시 전역에 걸쳐 대외 협력업무도 수행한다.

팀장 이외의 직원은 시의 저소득층 가정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선물가방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팀장에 의하면 '이들의 업무는 확실히 북스타트의 성과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셰필드에는 북스타트 전담직원이 있다. 그러나 북스타트는 셰필드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운영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스타트는 단순히 무료로 책을 나누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운동과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이 사서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팀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북스타트는 북스타트팀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도서관에서 북스타트 관련 프로그램 및 북스타트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서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북스타트 팀원이 아닌 공공도서관의 모든 현장 사서들이 가족들을 접하고 그리고 북스타트 가방을 전달한다. 우리 팀원들은 비록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사서가 부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유가 없을 경우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도서관의 직원들이 북스타트에 관여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4. 4 예 산

북스타트팀은 시의 예산으로 유아들에게 줄 선물가방을 개당 2.5파운드(약 5,000원)에 북트러스트로 부터 구입한다. 이 선물가방을 소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략 14~15파운드(약 28,000~30,000원)인데 중앙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출판사들의 지원으로 구입가격이 개당 2.5

3) 셰필드에 있는 27개 모든 공공도서관은 시의 관할하에 운영된다.

파운드로 책정되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지방자치정부의 북스타트팀은 질이 조금 떨어지는 선물가방을 개당 1파운드에 구입하기도 한다. 셰필드시는 개당 2.5파운드 하는 선물가방을 구입해서 유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북트러스트로 부터 가방을 구입할 때는 아래(4.6 북스타트 가방에 든 선물)에 언급한 모든 내용물들이 들어 있지는 않다.

셰필드시의 몇 몇 지역 - 대체로 낙후된 지역 - 예를들면 마너카슬, 다널, 틴슬리, 파슨크로스, 사우쉬 그리고 스탁스브리지에서는 '단독재건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 (North Somerset Council [2000]) 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특별기금이 북스타트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4. 5 운영 방법

셰필드 북스타트팀은 시,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예산 혹은 기금을 지원 받아 북트러스트로 부터 선물가방을 구입하고 사업지역의 유아들에게 이 가방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 북스타트팀은 선물가방에 들어가는 도서의 선택을 북트러스트에 의존한다. 즉 북트러스트가 일괄적으로 전국의 유아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도서를 결정한다. 셰필드 북스타트팀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책이 들어 있는 선물가방을 구입하여 이 가방에 도서 이외에 북스타트 관련 각종 지역선물과 자료를 추가로 넣는다. 그러나 '북스타트 플러스' 가방은 지역의 취향에 맞게 셰필드 북스타트팀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다.

북스타트의 기본 활동인 유아에게 무료로 책선물 가방을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선물권(Bookstart voucher)을 통한 전달방법. 즉 방문간호사가 유아의 부모에게 북스타트가방(Bookstart bag or pack)과 바꿀 수 있는 선물권을 준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북스타트는 유아들의 성장발육을 점검하기 위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는 간호사(Health Visitors)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유아와 부모들은 유아들이 생후 6-8개월이 되었을 때 성장발육을 점검하기 위하여 동네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때 북스타트가방과 교환할 수 있는 선물권을 받게된다. 유아들의 부모들은 이 선물권을 이동도서관을 포함해서 가까운 도서관에 가지고 가서 북스타트가방과 교환한다(Department of Libraries, Archives & Information 2003). 이 가방에는 두 권의 두꺼운 종이로 만든 유아책(baby board book), 북스타트 도서관카드, 북스타트 및 관련 프로그램 소개팜플렛, 지역 도서관 소개자료 그리고 '시(詩)가 코팅된 판' (rhyming place mat) 이 들어 있다(Sheffield City Council 2004).

둘째, 직접 전달방법. 즉 방문간호사나 북스타트 담당 직원이 선물권이 아닌 북스타트가방을 부모들에게 직접 주는 방법이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방법은 선물권을 매개로 해서 아이와 부모를 도서관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도서관 회원카드가 없는 부모에게 정식등록을 하게하여 유아와 부모를 새로운 도서관 이용자로 만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물권을 받은 부모가 그 선물권을 '북스타트가방'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모든 어린이에게 책을 전달'한다는 이 운동의 기본 취지를 잃게 된다.

두번째 방식은 위의 북스타트의 기본 취지를 확실하게 달성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아이와 부모를 도서관으로 데리고 와서 장기적으로 도서관이용을 통해서 '평생 책사랑'을 일깨워 준다는 북스타트의 또 다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셰필드 뿐만 아니라 영국 다른 지역의 북스타트는 기본취지, 즉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책 선물 제공'이라고 하는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하다. 왜냐하면 영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번째 방법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셰필드 북스타트 책임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그게(첫번째 방법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단지 몇 몇 사업지역에서만 선물권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의 북스타트는 간호사가 선물가방을 부모에게(직접) 전달하고 부모들은 그 가방을 가지고 가서 활용한다. 하지만 도서관과의 연계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들은 첫번째 방법을 통해서 선물가방을 가져가기 위해서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고 또 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

영국 각 지역의 북스타트사업은 비록 대부분의 사업비를 소속 자치단체로 부터 지원받고 있어 재정적으로 북트러스트로 부터 독립적이나 북트러스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셰필드의 북스타트는 하나의 사업규칙을 가지고 북트러스트가 요구하는 전국적인 사업기준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즉 셰필드 북스타트팀은 전국적인 사업의 운영주체인 북트러스트에게 일정한 표준 모형하에서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4.6 북스타트 가방(Bookstart bag or pack)에 든 선물

북스타트 가방속의 내용물들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단순히 어린이에게 한두 권의 책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사업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셰필드지역에서 주어지는 가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내용물들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있다.

첫째, 유아들에게 주어지는 북스타트 도서관 카드(Bookstart library card). 이 도서관카드는 유아들도 도서관 이용자로 대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또 이 카드는 북스타트운동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연구분석하기 위한 목적하에 만들어 졌다. 이 카드의 전면에는 북스타트 로고와 함께 이 카드만의 고유 바코드번호(033으로 시작)가 새겨져 있다. 따라서 도서관당국은 언제든지 이들 북스타트 카드 보유자의 도서관 이용현황을 파악 할 수 있다.

둘째, 열쇠고리에 휴대 할 수 있는 바코드고리(폭 2.5cm 길이 5.5cm). 이 바코드고리에는 유아의 북스타트 도서관카드에 부여된 번호와 똑 같은 바코드 번호(033으로 시작)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부모들이 만약 유아 도서관카드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을 경우 이 바코드고리의 바코드를 이용해서 유아책을 빌

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부모들이 이 바코드고리를 다른 열쇠와 함께 언제나 열쇠고리에 휴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셋째, 유아의 이름을 써 넣을 수 있는 3개의 작은 북마크(폭 2.5cm 길이 8.5cm).

넷째, 두꺼운 종이로 만든 2권의 유아도서. '유아잠들기 시간'(Bedtime to Baby) 이라는 제목을 가진 한 권은 책장을 넘기고, 각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펼쳐볼 수 있게끔 하는 등 유아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아울러 여러 가지 지적 및 신체적 능력을 키워주게끔 만들어진 책이다. 또 다른 한 권은 동물에 관한 그림 책인데 부모로 하여금 유아들에게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동물 소리를 들려주고 따라하게끔 유도한다. 두 쌍둥이 혹은 세 쌍둥이 유아들에게는 각기 다른 유아도서가 들어 있는 선물가방을 제공한다. 또 소수민족 유아들에게는 요청에 따라 소수민족 언어로 된 유아도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아래의 북스타트팀장의 설명은 북스타트가 유아도서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 도서선정의 하나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 북스타트의 근본 목적은 유아와 부모가 함께 책을 볼 수 있도록 유아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영아들은 색 인지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흑백의 이미지 밖에 볼 수 없는데 북스타트운동은 이들 영아들이 흑백과 함께 기본이 되는 일곱까지 색을 구별하는 색 인지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데 유용한 책들을 부모들에게 제공한다.

다섯째, '시(詩)가 코팅된 판(rhyming place mat)'. 이 판은 유아들이 우유나 밥 그리고 간식을 먹을때 식탁보가 젖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부모들이 이 판을 늘 유아 곁에 두고 유아에게 이 시를 읽어주라는 의도로 만든 것이다.

여섯째, 지역 도서관 안내자료. 이 자료에는 시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의 전화번호, 주소, 개관시간 등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일곱째, 북스타트 관련 안내자료. 이 자료는 셰필드 북스타트의 구호(motto)인 '아이와 함께 책을(sharing books with babies)'에 대한 정보를 준다.

여덟째, 소수민족 언어로 쓰여진 유아도서관 카드 및 북스타트의 도서선물권에 대한 설명서.

4. 7 북스타트 관련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위(4. 3 북스타트 담당 인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 지역의 북스타트 담당자가 그 지역의 북스타트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도서관 직원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책선물권을 이용한 가방 전달 방법에서는 일선 도서관 사서들이 유아들과 부모들을 맞이하고 이들이 부모들에게 선물가방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또 북스타트 담당자가 종종 이 운동 관련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일선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4.7.1 '유아시간'(Baby Time)과 '기고 오르기' (Crawl and Climb)

북스타트와 관련해서 도서관에서는 유아들을 위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유아시간'이고 또 하나는 '기고 오르기'이다. 셰필드의 21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내용면에서 거의 같다. 다만 '기고 오르기' 프로그램은 '유아시간' 에 비해 좀 더 성장한 - 개월 수가 많은 - 유아들을 위한 것이 다를 뿐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만3세 이하 유아와 그 부모 혹은 '그들을 돌보는 사람' (baby care)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서관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최저 1시간에서 최고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시간에 유아와 그들의 보호자에게 장난감, 부드러운 놀이도구, 책 그리고 간단한 음료수와 비스켓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내용은 '책 나누기' (sharing a book): 책 함께 보기, 노래부르기, 시 읽으며 놀기, 친해지기: 사회화 (socialising) 그리고 도서관의 가족서비스 소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북스타트 팀장에 의하면 이들 프로그램은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실행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서관 고객을 찾아내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그녀는 '아직도 여전히 사회엔 도서관을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 유아프로그램은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고 말했다.

북스타트 팀장은 이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의 설명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스타트가 단순히 '책'과 '독서'만을 강조하는 운동이 아님을 상기시켜 준다.

• 책 나누기: 책 함께 보기

두 개의 북스타트 관련 유아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책 나누기'이다. 즉 부모와 자녀 혹은 더 나아가 유아와 다른 유아가 책을 함께 보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스타트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밀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동시를 읽고 동요를 부르며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을 이용하는 시간들은 정말로 질적으로 수준 높은 시간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들 유아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과 '책 함께 보기'를 수행하는 것을 훈련시킨다. 북스타트팀장은 책나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책 나누기는 일상화 되어 있지 않은 '부모와 자녀가 책 함께 보기'를 습관화 시킨다. 또한, 책 나누기(프로그램은)는 부모나 보호자가 읽고 쓰는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도와주고 독서의 즐거움과 책의 소중함도 일깨워 준다. 부모들의 유아 프로그램의 참여는 부모들이 지식을 배우고 또 배우기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모들은 아마 배우기를 계속하거나 혹은 다시 배움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또 이 프로그램은 부모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애를 제거해 준다.

한편 팀장은 유아들의 '책 나누기'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유아프로그램 시간에는 유아들의 수만큼 충분한 수의 똑같은 도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아직 공유개념이 없어 책을 다른 어린이와 함께 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시간들은 또 유아들에게 책함께 보기를 소개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유아들에게 책을 함께 보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써 유아들도 점차적으로 책공유의 개념을 갖게 된다.

• 책 나누기에 좋은 유아책

세필드 북스타트팀장은 유아프로그램의 '책 나누기'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유아들의 수준에 맞는 특별하고 다양한 책을 이용한다고 말하였다.

유아프로그램에 쓰이는 책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예를들면, 동시집, 노래와 율동을 즐기는 책, 다른 나라의 유아들이 소개된 책, 유아들에게 책장을 넘기는 방법을 보여주는 책 - 책 혹은 문화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책장을 넘기기도 한다 -. 또 재미 있게 만들어진 책들. 예를들면, 사진삽화가 있는 책, 딸랑이가 달려있는 책, 악수를 내용으로 하는 책 등 반드시 단어나 문장을 읽도록 하는 책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 북스타트팀장의 설명을 통해 보면 '책 나누기'는 실천운동이지 책의 내용을 유아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책을 매개로 하여 부모와 자녀가 더욱 밀착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책 나누기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책에 대해서 자녀와 이야기 할 때 반드시 책에 사용된 언어만을 사용 할 필요는 없다. 각자 독자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 하면 된다. 이것은 북스타트의 기본이념이다. 이것은 시민들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이해를 고려한 것이기도 한다.

또 유아프로그램에서는 유아들의 정서 함양, 언어 발달 그리고 장애아들의 장애극복에 도움이 되는 유아책들을 선정하여 이용한다.

잘 찢어지지 않도록 천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책들도 있는데 이러한 책들은 감정을 느끼고 놀이를 할 수 있어 일반 종이로 만든 책에 거부감을 갖는 유아들의 흥미를 사로 잡 을 수 있다. 또 병원과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줄을 서 있을 때 읽을 수 있도록 유모차에 매달 수 있는 책도 있다. 방울이 달려서 소리가 나는 책은 유아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도 하고, 다수의 형용사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책들은 유아의 감정표현을 도우면서 유아의 언어 발달도 진전시켜 준다. 또 시각, 청각 그리고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유아들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다. 동시 및 동요 책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들에게(이러한 것들을) 다시 기억시켜주고 또 다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있게 동시를 읽고 그리고 동요를 부르게끔 도와 주기도 한다.

다음의 설명은 또 유아들의 책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책을 이용해서 유아와 책 나누기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즉 기존의 정형화된 형태의 도서를 벗어나서 좀더 새롭고 다양한 형태, 예를 들면 장난감 같은 도서를 이용하여야 함을 설명해 준다.

작은 손인형도 있고 날씨, 낚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유아책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책들은 책이라기 보다는 장난감이다. 이러한 책들은 기존의 책들을 들여다 보는 것을 꺼리는 유아들로 하여금 한쪽을 살짝 넘겨보게끔 유도한다. 한권의 책 전체가 페이지 마다 '그림을 들어올려 보게끔 만들어진 책(flap book)' 이 있는데 이러한 책들은 작은 들어올리는 그림을 열고 닫아야하는 유아에게는 어려운 기술(동작)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아들은 책을 통해서 다양한 손 동작기술을 익히기도 한다.

• 노래 부르고, 시 읽으며 놀기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두 개의 유아 프로그램인 '유아시간'과 '기고 오르기'의 주요 활동 내용중 두번째는 부모가 유아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읽어주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이다. 셰필드 북스타트 팀장은, 이러한 놀이는 유아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 읽으며 놀기'는 유아와 함께 동요를 부르고 동시를 읽는 것은 유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부모들로 하여금 일상 생활중에서 예를들면 유아 식사, 목욕 그리고 산책 시간에 유아들에게 자주 동시를 읽어주는 것을 습관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함으로써 부모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러나 그 동안 잊고 있었던 동요 및 동시를 다시 기억하게 된다.

그녀는 또 '동시 읽어주기'는 유아의 언어습득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동요 및 동시에 쓰이는 단어나 표현들을 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300개 미만의 단어밖에 모르른데, 이 시 읽으며 놀기'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어휘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사회화(socialising): 친해지기

북스타트 운동의 여러 가지 목적중의 하나는 위(3.1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해결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스타트 팀은 두 개의 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모와 아이 뿐만 아니라 부모와 다른 부모 그리고 아이와 다른 아이가 사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스타트 담당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알면서 가깝게 지내는 이웃없이 고립된체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 (유아) 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현상에 근거하여 도서관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를 알고, 함께 놀므로써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그녀는 또 이러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룩된 '사회화'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율 증가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거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사회화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음으로 해서 도서관에 준비해 둔 여러가지 자료들 예를들면, 음반, CD, 비디오, 책 혹

은 어린이 성장과 관련된 도서들을 빌리고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있다. 부모들은 처음 두 세번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석할 때는 도서관의 자료들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서들이 꾸준히 부모들에게 도서관에는 아이와 혹은 이웃과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들 예를들면, 운동, 여가, 요리 등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구비되어 있다고 알려줌으로해서 부모들은 점차 이들 자료에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대출을 해 갈 것이다.

• 유아고객

북스타트는 유아들의 독서와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한 부모 그리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북스타트는 또 도서관에서 유아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세필드 북스타트 팀장은 도서관에서의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의 여러 가지 의미중의 하나는 '유아들을 도서관의 한 고객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유아들은 도서관의 미래의 주 고객인데 세필드도서관은 이들 유아고객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도서관은 수 많은 아름다운 유아도서들을 비치하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유아들이 책을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유아들이 책을 물어 뜯는 다거나 던지는 등 책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북스타트) 팀은 부모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은) 실수로 파손되고 잃어버린 책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부모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전히 모든 사서들이 이러한 정책에 따라 행동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직무 교육이 진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람(유아)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대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유아들이 미래의 도서관 고객이기 때문이다.

4.7.2 가족학습사업(Family Learning Project)

세필드 북스타트팀은 이 시(市)의 '성인학습팀'[4](the Adult Learning Team)과 협력하여 북스타트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개의 도서관에서 각각 5주 프로그램 - 가족학습사업 - 을 시범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북스타트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고 부모들과 '유아를 돌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아이들과 책을 통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북스타트팀은 이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의 반응이 좋아 시의 전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하이필드도서관(High-field Library)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2주이내에 또 다른 두 개의 도

4) 성인학습팀은 세필드시의 교육관련 부서의 한 부분이다. 이 팀은 학교, 도서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족학습'(family learning)을 지원한다. 북스타트팀은 이 성인학습팀과 협력하여 가족학습과 관련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성인학습팀에는 도서관과 연계해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북스타트 팀장은 이 직원과 협력하여 북스타트 프로그램 - 도서관 에서의 가족학습 - 을 운영한다.

서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셰필드 북스타트팀은 2004년 8월까지 시 전역에 걸쳐 여덟번의 '가족배움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와 부모들은 가족간에 '도서 함께보기'를 체험한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은 것들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5주 프로그램에는 '유아도서비평'(baby book reviews), 자신들의 아이를 주제로한 책과 노래 만들고 시 짓기, 유아와 관련된 좋은 웹사이트 소개 그리고 유아들의 독서와 관련해서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Department of Libraries, Archives & Information 2003). 이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유아도서비평' (baby book reviews)

북스타트 팀장은 이 '유아도서비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북스타트팀은 '가족학습사업'에 참가한 부모들에게 '유아 추천 도서목록'을 만들어 제공하고 부모들이 이 목록에서 권하는 도서를 직접 평가하게끔 한다. 그리고 부모들끼리 자신들이 평가한 책들을 서로 권장하도록 유도한다. 즉 북스타트팀은 부모들에게 권장도서를 직접 제공하여 부모들이 그 책을 집에 가지고 가서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부모들에게 자신들이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 해 준다.

• 책 만들고 노래와 시짓기

'가족학습'의 두 번째 활동 내용은 '책 만들고 노래와 시짓기'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단순히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뛰어넘어 책의 내용을 직접 몸짓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부모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직접 책을 만드는 하나의 창작 활동을 체험하게 한다. 북스타트팀장은 이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가족학습'시간에는 유아 추천도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와 유아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혹은 작은 것을 만들어 본다. 예를들면 악기관련 책의 경우에는 직접 악기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악기소리를 내어본다. 또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책을 만들어 보게끔한다. 예를들면 아이의 사진을 붙이고, 손도장을 찍고, 손 모양을 그리는 등 현재의 아이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만들도록 한다. 또 일반적으로 책을 만드는 데는 많은 읽고 쓰는 기술이 요구되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의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을 연습하고 익히게 된다. 실제로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책을 직접 만들어 갖는 즐거움이 아주 크다.

4. 7. 3 여름 가족독서 프로그램

북스타트 팀은 또 공공도서관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특별 가족 독서(혹은 책 함께 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방학 6주 동안 한 가족이 여섯 권의 책을 대출하면 그 가족에게 작은 상품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북스타트가족' - 북스타트 도서관 카드를 소지한 가족 - 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4. 8 북스타트 홍보

셰필드 도서관당국은 북스타트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셰필드 북스타트 뉴스레터'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 이 운동과 관련된 간단한 정보와 함께 유아권장 도서리스트를 담고 있는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종이 출판물을 통한 홍보는 활발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은 상당히 미약하다. 셰필드 도서관당국은 자체 홈페이지(Sheffield City Council 2004)를 통해 북스타트에 대해서 매우 개괄적인 정보만을 주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영국의 인테넷 문화가 일반가정에 아직까지 널리 보급되지 못한 까닭인 것 같다. 즉 아직까지 많은 가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당국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에 관심을 많이 나타내지 않는 것 같다. 흥미있게도 셰필드 북스타트운영에 관한 정보는 셰필드 도서관당국의 홈페이지 보다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시의 도서관 홈페이지(Christchurch City Libraries [2000b])를 통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아래 셰필드 북스타트와 관련된 내용은 크라이스트처치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것이다.

셰필드 도서관당국은 이 시의 산부인과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들에게 북스타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3월 영국의 교육부장관은 셰필드의 한 분관을 방문하여 영국의 50만번째 북스타트가방을 한 유아에게 직접 전달하였다(Christchurch City Libraries [2000b]). 한편 이러한 행사는 이 운동을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이 운동이 중앙정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북스타트팀은 '북스타트 유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꾸준히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그 한 방법으로 생일을 맞은 유아들에게 '북스타트 생일카드'를 보내주면서 도서관 이용을 새롭게 권장한다. 또 북스타트 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4. 9 유아 도서상

북스타트 홍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행사중의 하나는 각종 '어린이도서상'(Children Book Award)시상이다. 북트러스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미드(Meade)는 '북스타트가 출판계를 자극하고 출판시장의 역동성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영미 2003). 그런데 북스타트운동이 이러한 효과를 낳게된 데에는 그 자체 운영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행사가 함께 치뤄졌기 때문인데 이것이 영국의 각종 '어린이도서상'이다.

셰필드 도서관당국은 시의 약 100개의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셰필드 어린이도서상' 행사를 약 15년간 치뤄왔다. 이 시의 북스타트팀은 이 행사의 일환으로 유아를 둔 부모들의 유아독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유아도서출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2년부터 '셰필드 유아도서상'(Sheffield Baby Book Award) (Department of Libraries, Archives & Information 2003)을 만들었

다. 이 행사는 셰필드 도서관당국의 북스타트 팀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고 있고 또 약 20개의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부모들이 이행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즉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해마다 세권의 유아도서를 선정하고 이 책들의 저자, 삽화가 그리고 출판사들에게 유아도서상을 수여한다. 시상은 또 부모와 유아들중 선발된 각각 3명의 부모와 유아들이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한다.

5. 영국 북스타트의 영향

영국의 북스타트는 이 운동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추진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셰필드의 북스타트는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시(市)의 북스타트의 운동의 기준이 되고 있다. 각 나라의 북스타트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1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북스타트 한국위원회'가 결성되어 2003 년 4 월부터 서울시 중랑구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 운동의 목적은 '생후 6-7개월된 영아들(152명)에게 무상으로 책을 공급하고 참여 부모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영아기부터 책을 가까이하도록 유도하고 (유아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증대를 도와 주고자 하는 것'(곽금주 2003, 27)이다.

5. 2 일본

일본의 북스타트운동은 여러 준비과정을 거쳐 '일본 북스타트지원센터'의 주관하에 2001년 4월에 전국의 21개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1999년 '어린이 독서의 해 추진회의' - 일본의 어린이 독서활동에 관련된 민간의 280여 단체, 기업 그리고 개인이 참가해 만든 모임 - 는 영국의 북스타트운동을 연구하고 시찰하였다. 또 2000년 11월에는 도쿄 스기나미구의 시범실시를 염두에 두고 이 시의 우에노에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2003년 8월 현재 북스타트운동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06개 시(市)·구(區)·정(町)·촌(村)에서 실시되고 있다(사토 이즈미, 시라이 테츠 2003).

5. 3 뉴질랜드

영국의 북스타트가 뉴질랜드에 처음 소개된 지 약 14년이 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아직까지 뉴질랜드 전역에서 널리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문헌과 인터넷을 통한 검색 결과 크라이스트처지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의 이 운동의 추진 상황을 찾아 볼 수 없다.

크라이스트처치시의 경우 북스타트가 '유아를 위한 책 (Books for Babies)'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에 시작 되었다. 이 운동의 목적은 유아들의 읽고 쓰는 능력 배양과 도서관이용 증대에 있다. 도서관은 지역 병원, 가정출산을 돕는 간호사(home-birth midwifes) 그리고 '도서관의 친구'(Friends of the Library)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1년에 약 5,000개의

가방을 유아들에게 전달 하고 있다. 이 시의 도서관당국은 이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시, 지역 재단 그리고 켄터버리 독서협회로 부터 지원받고 있다. 선물가방에는 두꺼운 종이로 만든 유아도서 1 권과, 이 운동을 소개하는 안내 자료 그리고 도서관 등록증이 들어 있다(Christchurch City Libraries [2000a]).

6. 끝맺는 말

영국에서의 국민독서는 1850년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강조되어 왔고 또 다양한 독서증진 운동이 추진되어 왔다. 북스타트도 사실은 이러한 독서증진 운동의 하나로 태어났다. 그런데 북스타트가 다른 많은 운동과는 다르게 영국내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장되고 또 다른 나라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책 그리고 독서와 관련해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단체 - 북트러스트 - 에 의해서 북스타트가 구상되고 시작되었다.

둘째, 북트러스트는 북스타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즉 자신들의 구상을 바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키지 않고, 이 구상에 대해서 5년간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예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북스타트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 운동을 널리 소개하는데 설득력이 있었다. 북트러스트가 이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이 운동을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았음은 셰필드 북스타트 조사에서도 들어났다. 즉 셰필드 북스타트는 이 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버밍햄시 보다 약 7-8년 늦게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영국의 북스타트는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확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북스타트는 인생의 가장 어린나이에 독서가 시작되고 습관화 되어야 함을 강조한 독서운동이다. 즉 이 운동의 핵심 대상을 유아에 둠으로 해서 이 운동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트러스트는 많은 협력자들 - 중앙 및 지방정부, 각 지역의 도서관 및 보건당국, 각 지역의 대학 그리고 민간회사 - 을 찾음으로 해서 북스타트를 전국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운동이 되게끔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각 지역에서 북스타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셰필드 공공도서관(당국)은 북스타트 추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셰필드 도서관은 북스타트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자체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즉 시의 각 도서관은 이 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고 있고 도서관 이용을 극대화 시키는데 이 운동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도서관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예산을 투자하고 또 외부 기금을 도입하여 이 사업을 수행할 7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또 이 운동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아사서직'(Early Years Librarian)을 만들었다.

셋째, 도서관은 북스타트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사서중심의 이 운동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 두 개의 유아프로그램, '여름 가족독서 프로그램', '가족학습사업' - 을 개발하여 시의 여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넷째, 도서관은 이 운동의 취지를 단지 유아들의 '독서습관 고취' 혹은 '학습능력 배양'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유아와 부모 등 가족관계 개선 그리고 소외가정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로도 삼고 있다.

다섯째, 도서관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한 유아들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습관 그리고 이들의 읽고 쓰는 능력의 향상을 계속해서 관찰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별도의 도서관 카드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 영국 북스타트의 성공적인 운영의 또 다른 요인은 잘 발달된 사회복지제도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영국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지역 보건당국은 영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그리고 무료로) 정기적인 성장발육을 점검해준다. 따라서 어떤 유아도 출생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1차 무료 의료기관인 동네보건소(GP)를 방문해야 하거나 혹은 간호사의 방문검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북스타트가 보건소나 이들 방문 간호사를 활용하면 유아는 누구나 쉽게 북스타트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된다. 또 작은 동네도서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스타트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부모들은 쉽게 이들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영국 북스타트운동의 성공적인 시행은 시라이 테츠(일본 북스타트 사무국장)의 견해처럼 영국의 잘 발달된 의료와 도서관 서비스 그리고 지역 보건당국과 도서관간의 긴밀한 협조에 있다고 하겠다(이영미 2003).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국과는 다른 도서관 및 의료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스타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및 보건소 외의 또 다른 기관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다. 즉 영국과는 다르게 한 도시(혹은 군)에 수 십개씩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기관인 동사무소(혹은 면사무소)나 유아관련 사설 병원인 산부인과 혹은 소아과 병원과도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 볼 수 있겠다. 또 이들 기관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혹은 북스타트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곽금주. 2003. 한국의 북스타트 시범운동 효과에 관한 연구(I): 3개월간의 효과검증. 2003 북스타트국제심포지엄, 2003년 9월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김영석. 2003. 영국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도서관』, 58(4): 3-38.

사토 이즈미, 시라이 테츠. 2003. 북스타트, 아기와 함께 책 읽는 시간 - 일본 북스타트 전개. 2003 북스타트국제심포지엄, 2003년 9월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웬디 쿨링. 2003. 영국 내셔널 북스타트 프로그램. 2003 북스타트국제심포지엄, 2003년 9월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이영미. 2003. 아기에게 꿈과 사랑을 읽어줍시다 (6): '북스타트 발상지' 영국을 가다. 국민일보. 2003. 5월 5일.

Booktrust. [1992]. Welcome to Bookstart. London: Booktrust.

Booktrust. 2003a. Bookstart, a gift for life. [accessed 2004.11.3]. <http://www.bookstart.co.uk >

Booktrust. 2003b. Booktrust. [accessed 2004.3.15].<www.booktrust.org.uk>.

Booktrust. 2003c. Booktrust. [accessed 2003.10.2]. <http://www.booktrusted.co.uk/booktrust/index.html.

Booktrust. [2003d]. Bookstart programme history: small beginnings. [accessed 2003.11.3] <http://www.bookstart.co.uk/general/history/small.html>

Booktrust. 2003e. *Bookstart Partnership Report*. London: Booktrust.

Christchurch City Libraries. [2000a]. Books for Babies. [accessed. 2004. 5.4] <http://library.christchurch.org.nz/Services/BooksForBabies/>.

Christchurch City Libraries. [2000b]. Books for Babies: Sheffield Bookstart programme-updates. [accessed. 2003.10.2]. <http://library.christchurch.org.nz/Services/BooksForBabies/sheffield.asp>.

Department of Libraries, Archives & Information. 2003. Sheffield Bookstart Newsletter, No.4: 1.

Elkin, J., B. Train, and D. Denham. 2003. *Reading and reader development: the pleasure of reading*. London: Facet Publishing.

London Borough of Enfield Council. 2002. *Bookstart, London Borough of Enfieldl Annual Report 2002/2002*. London: London Borough of Enfield Council.

North Somerset Council. [2000]. Single Regeneration Budget. [accessed 2004.2.24]. <http://www.n-somerset.gov.uk/

working/regeneration/index.asp>. 영국내 낙후된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중앙정부의 기금

The Sheffield Children's Book Award Team. The Sheffield Children's Book Award. [accessed 2004.4.29]. <http://www.sheffieldchildren'sbookaward.org.uk/>.

Sheffield City Council. 2004. Bookstart/ Books for Babies. [accessed 2004. 4.28]. <http://www.sheffield.gov.uk/in-your-area/libraries/tots-2-teens/books-boos-for-babies>.

Sorby, Barbara. 2002. Bookstart..just the beginning?. M.A. thesis, the University of Sheffield.

Sure Start. [2004]. Welcome to Sure Start. [accessed 2004.4.27]. <http://www.surestart.gov.uk>.

〈부록〉 질문지(Schedule)

Interview Schedule

This interview is being carried out as part of my personal research. In order to further my research, I would like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Bookstart in Sheffield and its operation, budgets, staff, Bookstart related programs, etc. I should emphasise that your answers will be treated in strict confidence and your name will not be identified in the article. In order to obtain as accurate record as possible, I would like to tape-record this interview. Do you have any objection to it?

Part A. Operation, Budgets and Staff

I would like to start by asking about its operation, budgets and staff.

1. What is the procedure for parents getting a Bookstart bag from public libraries?

2. What age of babies are given a Bookstart bag?

3. How many free books are given?

4. What kinds of books are given to babies?

5. Who chooses the books?

6. Who provides the funds for Bookstart in Sheffield?

7. Is Bookstart only carried out by the members of the Bookstart Team?

8. How do local public libraries participate in the Bookstart project?

9. How is Bookstart going in Sheffield, and is it popular by parents?

Part B. Bookstart related programs

I will now move on to ask about Bookstart related programs.

10. What are the three pilot projects?

11. Do many parents participate in the three projects?

12. Why are four staff members based in one particular public library, and is there any special reason?

13. What is the purpose of the Sheffield Baby Book Award?

14.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Baby Times' and 'Crawl and Climb'?

Part C. Other Matters

I will now move on to ask you other matters regarding Bookstart in Sheffield

15 What is the Adult Learning Team?

16. What is the Bookstart library ticket?

17. What is 'the rhyming place mat'?

18. What does the expression 'sharing books (with babies) mean'?

19. What does the expression 'rhymes with time to play' mean?

20. What does the expression 'socialise' mean?

Conclusion

To conclude,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add about Bookstart in Sheffield?